

장남 페이퍼컴퍼니 확인 전두환 비자금 유입 조사

2004년 차남 조세포탈 수사할 때 설립
"전씨 일가 철저히 추적 추징금 환수해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 회피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전씨 일가에 대한 강도높은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29만원' 밖에 없던 1672억원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악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관련기사 3면〉
비영리 독립 언론 뉴스타파는 3일 전두환의 장남 전재국씨가 조세회피처인 버진아일랜드에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전재국 씨는 지난 2004년 7월 28일 '블루 아도니스'(Blue Adonis Corporation)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전씨는 이 회사의 단독 등기이사 및 주주로 등재됐으며 주주로 표기된 서초동은 전재국씨가 대표로 있는 '시공사' 본사 주소와 일치한다고 전했다. 또 '블루 아도니스'의 주식청약서와 이사 동의서, 주식인증서에서 전재국씨의 영문 자필서명도 발견됐다고 뉴스타파는 덧붙였다.

전 씨가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2004년의 경우 동생 전재용 씨에 대한 검찰의 조세포탈 수사로 전두환 비자금 은닉 문제가 불거진 와중이라는 점에서 비자금이 페이퍼컴퍼니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전재용 씨에 대한 수사서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73억 원이 전 씨에게 흘러들어간 것으로 나타나 해당 자금을 추적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비등했다.

당장, 5월 관련 단체를 비롯, 정치권, 시민사회 등 각계에서 "호화 생활

을 즐겼던 전두환 일가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미납 추징금 환수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전씨 비자금에 대한 관계당국의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18 민중항쟁 33주년 기념행사위원회는 10일경 서울 연희동 전씨 자택 앞의 방문 계획을 세우고 철저한 추징을 촉구한다는 계획이다. 행사위원회 측은 전씨가 5·18 광주민중항쟁 유혈사태 책임자인데다, 역사왜곡이 신군부로부터 출발했고 이 과정에 전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전씨가 모든 사안의 중심에 있는 만큼 추징금 환수는 5·18 역사를 바로잡고 5월 정신을 재정립하는 의미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사정당국도 의지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위 파악에 착수했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광주지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효가 만료되는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제청도 전씨의 비자금이 장남 전재국씨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갔을 가능성에 주목, 돈의 출처를 밝혀내는데 주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종형기자 galee@



녹음 아래 여름나기 3일 장성군 서삼면 축령산 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이 녹음이 우거진 편백나무 아래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달 하순 광주·전남에 본격적인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관련기사 7면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청산도 구들장 논·보성 차밭 세계농업유산 등재 '쟁걸음'

전남도, 10건은 국가유산 등재 추진

기획시리즈 13면

청산도 구들장은, 보성 계단식 차밭, 화순 다랭이논, 구례 산수유 시목지.

전라도 사람의 탐과 생명력이 밴 농업유산을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 작업이 본격화됐다.

전남도는 최근 청산도 구들장 등 10개 시·군 11건을 국가농업유산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지정하는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농업 인구 감소 등으로 이들 유산이 훼손되고 있어 국가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해 보존하려는 것이다.

전남지역에서는 지난 1월 국가농업유산 1호로 지정된 청산도 구들장논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 작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전남도와 완도군은 오는 12월 FAO 실사와 등재 완료 목표 4~5월 FAO실무진과

전남도 농업 관계자 등이 참석해 현장실사를 최종 준비하는 현장 시찰에 나선다.

전남도는 또 보성 계단식 차밭·자연농법, 담양 대나무숲, 신안 갯벌, 화순 달구리마을(붓도랑과 다랭이논), 구례 산수유 시목지, 무안 회산백련지, 영광 염전, 장흥 개매기어장, 고흥 거금도 김양식장 등 6대 대표적 농업유산자원을 관광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비 84억원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광주일보와 전남의 농업유산을 국가농업유산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기획 시리즈 '농업유산, 전남의 오래된 미래'를 연재한다. 전남 농업유산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보존 실재를 점검해 지역의 미래 자산으로 만들자는 취지다. 아울러 일본 현지 취재를 통해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계획이다. /오광복기자 kroh@kwangju.co.kr

청와대 새 홍보수석에 이정현

경호실 차장 박종준·평통 사무처장 박찬봉

박근혜 대통령은 3일 '윤창중 성추행 의혹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이남기 전 홍보수석비서관의 후임으로 이정현(55) 정무수석비서관을 임명했다. 〈관련기사 2면〉

또 차관급인 청와대 경호실 차장에는 박종준(49) 전 경찰청 차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에는 박찬봉(57) 새누리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김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

김 대변인은 이 수석 임명 배경에 대해 "홍보수석 자리는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이) 인사의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곡성 출신인 신임 이 수석은 2007년 수석과 윤 전 대변인의 낙마로 비어 있는 남성 류 대변인의 경우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박 차장의 임명 배경에 대해 "경찰청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경호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췄을 뿐 만 아니라 주위의 신망이 두터워 발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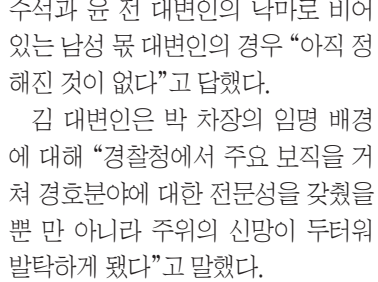
또 박 사무처장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27년간 근무하고 새누리당 외교통일위 수석전문위원으로 근무하는 등 통일업무의 식견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이정현



박찬봉



박종준

학교설립 59주년 (1954~2013)
59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姜시장 "시·산하기관 채용시험 한국사 채택"... 광주시교육청 대응팀 구성

'뉴라이트 역사왜곡 교과서' 대응 나섰다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이 '뉴라이트 계열 고교 역사교과서'의 역사왜곡 움직임(광주일보 3일자 3면)에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열린 6월 정례회에서 "뉴라이트 극보수 계열 고교교과서가 5·16을 혁명, 5·18을 폭동으로 기술하는 내용을 담은 채 검정 본심사를 통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 같은 역사왜곡행위를 좌시할 수 없으며, 역사교과서 왜곡대응위원회를 통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조만간 있을 여야 영수회담 의제로 5·18 민주화운동 왜곡 대처 방안과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식 지정곡 선정이 포함될 수 있도록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건의

했다"면서 "새누리당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강 시장은 또 최근 5·18 민주화운동 등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는 사례들을 거론하며 "시청과 산하기관 채용시험에 한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이를 위해 "광주시부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점,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험, 시 본청 전입시험, 공사 등 산하기관 채용시험 등에서 필수과목으로 한국사 과목을 넣는 등 솔선수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빠르면 오는 10월로 예정된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시점부터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이날 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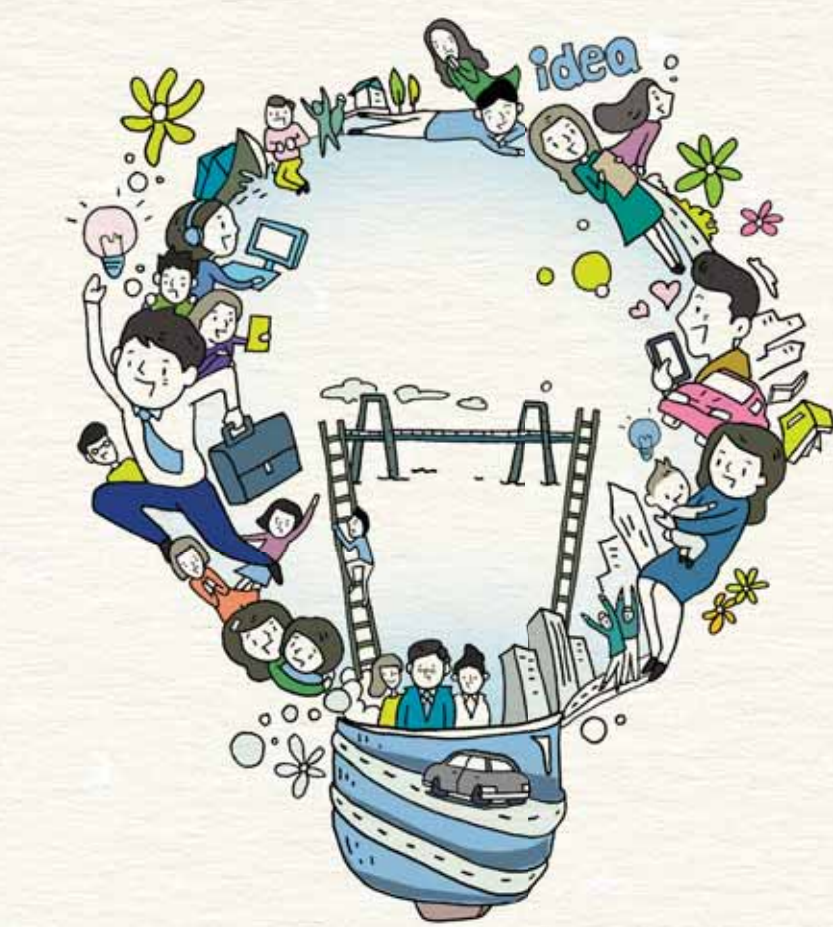
회의에서 "일부 역사 교과서에 5·18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발전 과정 전체가 상당히 훼손돼 기록되고 있다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현행 역사교과서와 뉴라이트 역사교과서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지시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역사 교과서 왜곡 대응팀을 구성해 현행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과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교과서 분석 등 연구작업을 벌여 국사편찬위원회와 해당 교과서 출판사 측에 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도 성명서를 통해 "종편과 일베에 이어 역사교과서마저 동원해 역사를 왜곡하고 있다"며 "정부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의 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주장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창조경제 종합 포털 OPEN!
www.creativekorea.or.kr



국민이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아이디어는 반짝! 미래경제는 활짝! — 창조경제를 꽃피울 당신의 상상력을 응원합니다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상상력과 아이디어를 내고,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부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경제! 아이디어만 있으면 실패해도 끊임없이 도전하여 성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좋은 일자리는 나누고, 성장의 열매는 공유하는 희망의 새시대를 만들겠습니다

국민행복과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창조경제 실현 6대전략

- 창의성이 정당하게 보상받고, 창업이 쉽게 되는 생태계 조성
- 꿈과 끼, 도전정신을 갖춘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벤처·중소기업의 창조경제 주역화 및 글로벌 진출 강화
- 창조경제의 기반이 되는 과학기술과 ICT 혁신역량 강화
-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한 성장동력 창출
- 국민과 정부가 함께하는 창조경제문화 조성